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늘’ 사상과 용서 윤리

이진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I. 들어가는 말

II. ‘하늘’ 사상의 신학적 정의 및 공동체적 배경

III. ‘하늘’ 사상을 반영하는 주기도문

1. 정체성이 드러나는 ‘하늘’ 사상: 이름, 나라, 뜻을 구하는 기도
2. 일상의 기도에 드러나는 ‘하늘’ 사상: 양식, 용서, 보호를 구하는 기도

IV. ‘하늘’ 사상의 구체적 실천윤리인 용서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2.14>

• ABSTRACT •

The concept of ‘heavenly’ and the ethics of forgiveness in the Lord’s Prayer of Matthew

Ph.D Candidate, Lee, Jin Seon(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thical lessons of the Lord’s Prayer in Matthew, which pursues the concept of ‘heavenly,’ for modern Christian communities. The ‘kingdom of heaven,’ recorded only in Matthew, explains the origins of the identity of the Matthew community. The Matthew community’s pursuit of “a better righteousness” and following the Father’s perfection is reflected in the Lord’s Prayer.

The concept of heavenly rule expressed in the Lord’s Prayer is reflected not only in the prayers for the holiness of God’s name and the fulfillment of his kingdom and will on earth, but also in the prayers for daily bread and protection in our weakness. The ethics of forgiveness toward the community in the Lord’s Prayer symbolizes the practice of ‘a better righteousness.’ The Lord’s Prayer also calls modern Christians, praying to “our Father in heaven,” to be tolerant of others. The repeated emphasis on forgiveness urges the Christian community to practice the ethical practice of forgiveness.

Key words: The Lord’s Prayer, ‘heavenly’ concept, better righteousness, forgiveness, ethical practice

I. 들어가는 말

기독교 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성서의 가르침은 기독교 공동체에 참된 가치와 윤리적 교훈을 제공한다. 그러나 성서가 아무리 지고한 윤리적 교훈을 주더라도 그 가르침에 따른 기독교 공동체의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성서가 지닌 가치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성서의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윤리학적 차원의 성서 연구와 더불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고민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이다. 현대의 기독교 사회에서 대두되는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성서 연구를 통한 사회윤리의 실천적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기도문이 포함된 본문 연구를 통해 그 심오한 윤리적 성찰을 추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기독교 공동체 믿음의 고백이 담긴 대표적인 기도문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중심이 되는 기도이자 중요한 교리의 기도가 분명하다.¹⁾ 터너(Turner)는 주기도문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의 모델로 제시한다.²⁾ 이러한 주기도문은 초기 예수 운동에 참여한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와 윤리 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믿음의 고백으로 삼는 기독교 공동체라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그것이 내포하는 공동체 윤리의 실천이 수반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올바른 영향력

1) Ulrich Luz, *Matthew 1-7 A Commentary*, Trans. James E. Crouch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2007), 312.

2) David L. Turner, *Matthew*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186.

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 스스로에게 믿음과 윤리적 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믿음과 도덕의 요약으로 여기는 주기도문에 대한 사회윤리학적 관점의 고찰은 성서가 주는 윤리적 메시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기도문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연구는 윤리학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두 주기도문은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저작물로 그 순수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³⁾ 주기도문을 그 형태와 어법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 역시 각 주기도문이 지니는 주요한 특징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각 복음서가 지니는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두 복음서가 속한 공동체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⁴⁾ 마태복음 주기도문의 정황을 볼 때 현대 기독교 공동체와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정황 속에서 주기도문을 해석한 서중석은 마태의 주기도문은 불화의 정황 극복을 위

3) 마태와 누가는 복음서 기록에 있어 마가복음과 함께, 예수의 어록자료집(Q)을 사용하였다. Luz, Ulrich, *Die Jesusgeschichte des Matthäus*, 박정수 옮김, 『마태공동체의 예수이야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0. 두 주기도문의 원문을 추정하여 복원한 Q와의 비교에서 누가복음의 것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보다 Q에 더 충실하다는 견해가 있다. 소기천, 『예수말씀 복음서 Q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357. 이와는 달리 서중석은 학자들의 견해를 살피며 마태복음이 더 오래된 형태임을 주장한다. 서중석은 마태의 것이 더 순수하고 그것을 누가가 생략하거나 수정했다는 주장(M. D. Goulder, "The Composition of the Lord's Prayer," *JTS*14(1963), 35)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하늘에 계신"(6:9b)과 "악한 자로부터 구하옵소서"(6:13b)의 마태가 부가한 구절로 인해 누가의 것이 더 순수하다는 주장(S. Van Tilborg, "A Form-Criticism of the Lord's Prayer," *NovTest* 1(1972), 94-105)에서, 길이는 누가가, 어법은 마태의 주기도문이 더 오래된 형태에 가깝다는 예레미야스의 주장(J. Jeremias, *The Prayer of Jes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p.93)을 따른다. 서중석, 『복음서해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70.

4) 마태복음에는 빈말을 되풀이하거나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순수하고 은밀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누가복음에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지니는 것에 대하여 누가 공동체도 자신들의 기도문을 소유하고자 한 의도로 기도문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서중석, 『주기도문과 제자의 길』(서울: 이레서원, 2008), 11-12.

한 용서의 모델로 제시된 은밀한 기도의 방법이며 누가의 주기도문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독자적인 기도문에 대한 요청으로 간결한 기도를 제시한 것이라 한다.⁵⁾ 불화의 정황 극복이라는 기록 의도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서 윤리적 담론을 더 깊이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현 기독교 공동체에 주는 사회윤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주는 윤리적 의미의 발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마태 공동체의 중심적인 사상이 있다. 바로 마태의 ‘하늘나라’에 기반한 ‘하늘’ 사상이다. 주기도문이 불화의 정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기도의 방법이라는 견해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의 ‘하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주기도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하늘’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하늘’ 사상은 ‘더 나은 의’(마 5:20)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고자 한 마태 공동체의 윤리적 태도가 드러나는 사상이다. 한편 주기도문에는 이러한 윤리적 태도가 용서라는 부분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단순히 기도를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 속에서 용서의 윤리적 실천 과제를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태 공동체의 윤리적 태도는 기존 학자들의 하늘나라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⁶⁾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윤리적 태도를 지닌 공동체의 정체성만을

5) 서중석, 『복음서해석』, 172-173.

6) 포스터(Robert B. Foster)는 ‘하늘나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를 비판하며 자신의 새로운 해석적 입장을 세웠다. 그는 하늘나라는 마태의 의도적 담론으로 예수와 제자 공동체의 정당성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으로 본다. 이는 하늘나라를 통해 마태복음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보려는 전략이자, 유대 사회의 배척에서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임을 설명한다. Robert B. Foster, “Why on Earth Use ‘kingdom of Heaven’?: Matthew’s Terminology Revisited,” *New Testament studies*, 48 no.4(2002), 487-499. 차정식은

언급하고 있으며 공동체 내 윤리적 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공동체가 주기도문을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용서라는 신학적 통찰을 통한 윤리적 관점에 까지 다가서지 못한 측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도문이 용서의 실천을 강화하고 직접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문의 전체적인 연구는 주로 성서해석의 주석적 방법⁷⁾으로 이루어지나 마태 공동체의 정황 파악과 관련해서는 사회과학적 방법⁸⁾에 근거하여 도출한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적 논의를 통해 주기도문이 기독교 공동체에 제시하는 용서의 실천이라는 사회 윤리적 메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포스터가 주장한 정체성의 강화와 변질의 방지가 하늘나라 주장에의 목적으로 보기보다 그 결과로 인식하여 신학적 상상력의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하늘나라를 재조명한다. 그는 하늘나라의 논의와 관련해 산상수훈을 통해 설명하며 하늘나라는 제자 훈련의 지침인 산상수훈의 실천을 통해 선택된 소수에게 보상으로 제공되는 유산이자 유대교에 대한 대안적 삶의 목표로 주어진 새로운 주권 공동체임을 명시한다. 차정식,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와 신학적 상상력,’” 『한국기독교신학논총』46(2006), 57-88. 김학철은 하늘나라가 마태복음의 ‘하늘’ 담론을 분석하는 가운데 하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의미로 하늘나라는 새로운 가족 정체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마태 공동체의 하늘나라는 보편적이나 제한성이 있으며 선택받은 자의식을 표명하는 하늘의 모든 권세가 실현되는 통치 공간으로 여긴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그들의 존재적 위치의 재정립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한다. 김학철,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를 다시 살핌: ‘하늘’가족의 권세와 상과 ‘하늘 나라,’” 『신약논단』14(1)(2007), 1-37.

- 7) 주석적 방법은 본문에 대한 차분한 연구를 통해 구절 하나에서 뜻과 의미를 발견하려는 본문과의 대화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상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8.
- 8) 사회과학비평은 사회학, 종교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사회학의 모델들을 통해 성서시대 세계의 모습을 밝히고 그를 통해 성서를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사회과학비평은 공동체 경계, 권위, 지위, 역할, 집단 기능 등을 살피며 사회체제나 문화 그리고 사회적 관계들을 통해 해석하는 방법이다. 권중선, 『신약성서 해석과 비평』(대전: 침례대학교 출판부, 2005), 451-453.

II. ‘하늘’ 사상의 신학적 정의 및 공동체적 배경

마태복음은 본문 전체가 다섯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르고자 하는 저자의 편집으로 이를 통해 유대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논증을 보여준다.⁹⁾ 이러한 논증은 주로 마태 공동체 내의 질서와 윤리 문제이며 마태복음 저자는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더 나은 의’(마 5:20)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강조가 아니다.¹⁰⁾ 마태복음은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과의 율법에 대한 상당한 논쟁 가운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구약의 인용들을 다수 사용한다.¹¹⁾ 그러나 저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율법을 훨씬 능가할 것을 가르친다(마 5:20; 20:26b-27).¹²⁾ 이러한 의의 실천을 표명하는 “더 나은 의”에 대한 강조는 자신들 공동체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기의식과도 같은 사상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하다. 그 사상은 마태복음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하늘’이라는 단어와 관련된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하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¹³⁾ 이러한 관심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보다 ‘하늘나라’를 더 선

9) Howard Clark Kee, *Understanding the new Testament*, 서중석 옮김, 『신약성서의 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185.

10) 키이는 마태복음은 이미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이를 통해 구약성서가 성취되었다고 한다. 위의 책, 192.

11) 마 5:21, 27, 31, 33, 38, 43절에서 구약의 인용을 사용하고 있다.

1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5:20), “...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20:26b-27) 등과 같은 구절이 있다.

13) 마태복음에서 ‘하늘(οὐρανός)’이라는 표현은 마가(18회), 누가(35회), 요한(18회)에 비하여 많이 사용되었으며 모두 82회의 기록이 있다. 김학철, 『마태복음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71.

호하는 저자의 표현으로 확증된다. 이는 마태의 신학적 사상이 ‘하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하늘에 대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정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하늘’이 마태복음만의 표현은 아니다. 또한 구약성서와 제2성전기 문헌에서도 하늘은 자주 등장한다.¹⁴⁾ 그러나 마태 저자는 ‘하늘’의 이미지를 자신의 복음서에 사용하여 자신의 공동체가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다.¹⁵⁾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은 그의 구원과 주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⁶⁾ 즉, 하늘은 장소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개념이 내포된 곳이다.¹⁷⁾ 이에 마태 저자는 ‘하나님 나라’보다¹⁸⁾ 하늘 통치의 개념이 내포된 ‘하늘나라(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의 사용을 선호한다. 하늘나라는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오직 마태복음만의 사용이다. 마태는 마가복음과 병행하는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¹⁹⁾ 이는 ‘하늘나라’

-
- 14) 구약과 유대 문헌의 하늘은 창조의 시작부터 등장하며 낙원이자 다가올 다른 세계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성전이 있는 곳이며 하늘의 법정이 소집되는 영역이라 한다. 강대훈, 『마태복음의 하늘과 하늘나라』 (서울: 솔로몬, 2022), 25-42.
- 15) 김학철은 ‘하늘’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자연적 하늘’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지칭이다. 둘째, 하나님과 특징적인 관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거처이다. 셋째, ‘하늘의 하나님’은 복과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초월성을 나타낸다. 김학철, 『마태복음 해석』, 71-73.
- 16) 김학철,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를 다시 살핌: ‘하늘’가족의 권세와 상과 ‘하늘나라,’” 16.
- 17) 이러한 통치개념과 관련하여 김학철은 마태가 ‘하늘’을 통치의 개념과 ‘땅’을 권세와 관련하여 연결한다. 마태는 ‘하늘’나라의 선포는 ‘땅’의 회복을 포함하며 이원론적인 하늘과 땅이 아닌 예수와 제자들이 일하고 회복되어야 할 땅으로 여겼다고 한다. 따라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사탄적 세력, 이방 제국이 점령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실현으로 회복되어야 할 곳으로 본다. 김학철, 『마태복음 해석』, 71-78.
- 18) 마태복음에 사용된 ‘하나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는 마 12:28; 19:24; 21:31, 43절이 있다.
- 19)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첫 장면을 기록한 막 1:15에서 하나님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병행 구절인 마 4:17에서는 ‘하늘나라(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로 표현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막 4:11과 마 13:11, 막 10:14과 마 19:14,

에 대한 마태복음 저자의 특별한 의도를 방증한다.

한편 마태복음에 사용된 하나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와 하늘나라(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가 서로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를 사용한 마태복음의 문체적인 특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⁰⁾ 사실 복음서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를 유사한 의미로 해석하여도 문맥상 본문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포스터는 이러한 단순한 문체적 특성에 대한 견해에 반박하며 하늘나라는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증명과 그들에게 하늘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위임된 하늘의 권위를 설명하는 마태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핵심 담론임을 주장한다.²¹⁾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용 구절들은 ‘하늘나라’와 유사한 의미와 맥락에서의 사용이 아닌 예외적인 이유에서의 사용이라는 견해가 있다.²²⁾ 마태복음 저자가 많은 부분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순한 문체의 차이가 아닌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의미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통치의 개념이 내포된 ‘하늘나라’는 어떠한 의도로 사용된 것일까?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ἡ βασιλεία τῶν

막 10:23과 마 19:23 등 많은 표현에 있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대신 하늘나라(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Hans Conzelmann and Andreas Lindemann, *Arbeitsbuch zum Neuen Testament*, 박두환 옮김, 『신약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482.

21) Foster, “Why on Earth Use ‘kingdom of Heaven’?:Matthew’s Terminology Revisited,” 488-490. 포스터는 이에 마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를 사용한 것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의 직접 호명을 피하기 위한 완곡한 표현이라는 견해, 하늘나라는 미래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실재를 의미한다는 것, ‘아버지의 나라’의 단순한 문체적 변용이라는 것, 하늘 정체성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그의 논문을 참조하라.

22) 차정식은 ‘하나님 나라’로 표기한 네 구절에 대하여 예수가 전하는 하늘나라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국외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차정식,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와 신학적 상상력,” 83.

οὐρανῶν)’는 모두 32번의 기록이 있다.²³⁾ ‘하늘나라’가 사용된 본문들에서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거나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장면의 구절 이외에 대부분 ‘하늘나라’는 ‘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의 실천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5:10, 19, 20; 7:21; 18:4). 이것은 ‘하늘나라’가 의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의의 실천은 ‘더 나은 의’와 관련되며 하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마태복음이 지니는 ‘하늘’ 사상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은 의와 관련해 차정식은 팔복이 이를 암시하고 있으며 하늘나라의 기준에 따른 자기 발견과 도전, 타자와의 소통의 자세와 같은 진정한 존재에 대한 자아 성찰임을 언급한다.²⁴⁾ 팔복은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하늘나라의 소유권이 있음을 설명한다. 헤그너(Donald A. Hagner)는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하는 “의”와 관련해 이러한 의는 새로운 차원이며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길을 따르는 것임을 언급한다.²⁵⁾ 더 나은 의는 하늘에 정체성을 둔 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윤리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태 공동체의 의의 실천의 모습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다른 유대 공동체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자기 정체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내세운 “더 나은 의”라는 윤리적 기준의 에토스를 자신들의 사회적인 정체성으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²⁶⁾ 이는 하늘나라의 백

23) 마 3:2; 4:17; 5:3, 10, 19(2회), 20; 7:21, 8:11; 10:7; 11:11, 12; 13:11, 24, 31, 33, 44, 45, 47, 52; 16:19; 18:1, 3, 4, 23; 19:12, 14, 23; 20:1; 22:2; 23:13; 25:1.

24) 차정식,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와 신학적 상상력,” 60.

25) Donald A. Hagner, *World biblical commentary. v. 33A: Matthew 1-13*, 채천석 옮김, 『WBC 마태복음 1-13』(서울: 솔로몬, 1999), 237-238.

26) Gerd. Theissen, *Gospel Writing and Church Politics-A Socio-rhetorical Approach*, 류효성·김학철 옮김, 『복음서의 교회정치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00.

성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내부에서는 물론 이방인에 대해서도 ‘세상의 빛(마 5:14)’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타이센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마태 공동체는 ‘더 나은 의’의 정신을 이들 공동체의 공통된 정체성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방인과 유대인을 능가하는 에토스를 통해 정당화되었다고 한다.²⁷⁾ 결국 마태 공동체의 ‘더 나은 의’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견지하기 위해 마태 저자는 ‘하늘나라’ 구절들을 ‘의’와 연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의의 실천²⁸⁾에 기반을 둔 자신들의 ‘하늘’ 사상은 일종의 자기 정체성이자 하늘 통치의 개념이다.

이러한 하늘 사상은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인 산상수훈의 중심에 놓인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주기도문은 그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구절을 통해 ‘하늘’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터(Foster)는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하늘나라’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구절을 통해 하늘과 결합함으로써 독자들의 정체성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확인시키고 있으며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온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²⁹⁾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완전한 통치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마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자기들의 믿음의 근본을 ‘하늘’에 두려는 자기 정체성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마태가 표현하고자 했던 ‘하늘나라’ 사상은 ‘하나님 나라’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하늘의 복을 부여받는 자들이 지니는 표상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저자의 ‘하늘’

27) Theissen, 『복음서의 교회정치학』, 101-102.

28) 의의 실천은 마태의 특징적 용어로 ‘의(δικαιοσύνη)’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고백과 더불어 예수의 해석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길을 의미하며, 의의 길은 율법주의가 아닌 사랑의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다. Kee, 『신약성서의 이해』, 202-204.

29) Foster, “Why on Earth Use ‘kingdom of heaven’?: Matthew’s Terminology Revisited,” 487.

표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구원과 통치를 받는 자신들의 공동체가 다른 유대공동체들에 비하여 더 뛰어나다는 의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적 사용이다.

III. ‘하늘’ 사상을 반영하는 주기도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서 보이는 가장 큰 문체적 차이는 “하늘에 계신”에 대한 마태복음 서두의 언급이다. 루츠(Luz)는 주기도문이 그 자체로써 가능한 신학을 이루기보다는 단지 기도라 한다.³⁰⁾ 그러나 누가복음과 다른 편집의 손길이 있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저자의 신학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만무하다. “하늘에 계신”이 강조되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그의 ‘하늘’에 대한 신학적 사상이 드러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마태복음 주기도문의 내용을 분석하며 그의 하늘 사상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고찰해 보자.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모두 여섯 개의 기도가 있다. 여섯 개의 기도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다.³¹⁾ 첫 번째 구조는 당신의($\sigma\upsilon$) 이름, 나라, 뜻을 구하는 기도인 “당신($\sigma\upsilon$)”청원과 두 번째는 우리($\eta\mu\epsilon\iota\varsigma$)의 복수 대명사에 한정된 양식, 용서, 보호를 구하는 “우리” 청원의 구조이다.³²⁾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끝나는 것이 맞지만 이어지는 두 구절

30) Ulrich Luz, *Matthew 1-7 A Commentary*, 325.

31) 루츠(Luz)는 그 구성을 처음 부분인 6:9c-10에 속하는 세 번의 “당신” 청원과 두 번째 부분인 6:11-13에 속하는 세 번의 “우리” 청원으로 구성한다. 처음 세 번의 “당신” 청원은 3인칭 단수인 $\sigma\upsilon$ 로 시작하고 있으며, “우리” 청원은 7번의 1인칭 복수 대명사에 의해 한정된다. Luz, *Matthew 1-7 A Commentary*, 309.

32) 터너는 그의 주석에서 처음 세 개의 청원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청원(6:9-10)으로, 다음 두 번째 세 개의 청원을 제자들의 필요를 위한 청원(6:11-13)으로 구분한다. Turner, *Matthew*, 185-189. 다른 주석에서는 주기도문(6:9-13)을 일곱 개의 청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David Wenham, “The Seven Form of the Lord’s Prayer in Matthew’s Gospel,” *The Expository Times*, 121 no.8(2010), 379. 참조.

(6:14-15)은 주기도문과 연계하여 용서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기도문은 첫 번째 구조에서 ‘하늘’ 사상에 근거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두 번째 구조에서는 ‘하늘’ 사상을 지닌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윤리적 태도는 주기도문 이후에 이어지는 두 구절(6:14-15)을 통해 다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 정체성이 드러나는 ‘하늘’ 사상: 이름, 나라, 뜻을 구하는 기도

주기도문의 시작인 마태복음 6장 9절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며 기도의 방법을 가르친다. 여기에서 ‘이렇게(ὁυτως)’는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가 나타내는 기도의 모습은 이전 구절에서 언급하는 올바르게 못한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마 5:7)을 가리키며 마태 공동체 내에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의 모습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지적한다.³³⁾ 마태복음의 저자는 중언부언하거나 빈말로 기도하는 외부 종교인과는 다른 새로운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헤그너는 유대 문헌에서 비슷한 내용의 기도문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주기도문을 하나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음을 설명한다.³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고정된 기도에 대한 하나의 기도 모델의 제시이다.³⁵⁾ 마태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도의 모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며 다른 유대 공동체의 기도가 지니고 있지 않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는 마태 공동체만의 기도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마태 공동체가 지니는 신앙의 근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33) 서중석, 『복음서해석』, 172.

34) Hagner, 『WBC 마태복음 1-13』, 289.

35) John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5), 285.

지'로 시작하는 기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에 집중시킨다. 마태 공동체는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마태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명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호칭에 "하늘에 계신"을 부가함으로써 이들이 혈육의 관계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보여준다.³⁶⁾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단지 '아버지(Πάτερ)'라고만 기록한다. 이는 아람어 '아바'의 형태와의 일치로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나 어른을 부를 때의 방법이다.³⁷⁾ 본래 Q본문에서도 '아버지(Πάτερ)'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³⁸⁾ 이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 기도문에 마태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마태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던 '하늘'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 여겨진다.

헤그너는 마태가 사용한 '하늘에 계신'은 곧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설명한다.³⁹⁾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땅 위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늘에 그의 공동체 정체성을 두고자 했던 저자의 의도임을 알 수 있다. 포스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에는 기도하는 자의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완성되기를 원하는 기도로 하늘은 아버지의 뜻이 충성스럽게 제정되는 곳임을 언급한다.⁴⁰⁾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늘'은 마태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과 그 신앙의 근간이 '하늘'임을 밝힌다. 이는 단순한 위치나

36) 서중석, 『복음서해석』, 176-177.

37) Luz, *Matthew 1-7 A Commentary*, 314.

38) 소기천, 『예수말씀 복음서 Q개론』, 357.

39) Hagner, 『WBC 마태복음 1-13』, 289.

40) Foster, *Why on Earth Use 'Kingdom of Heaven'?*, 498

장소적 ‘하늘’이 아닌 그들 신앙 공동체의 근본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마태 공동체의 하늘에 근간을 둔 정체성을 보여준다.

처음 구조에 속하는 세 가지 청원인 이름, 나라,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청원은 ‘이름’과 ‘거룩히’라는 단어가 중심을 이룬다.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특성이나, 그 성격을 나타낸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곧 명예나 존경과 같이 그 세력이나 힘을 뜻하기 때문이다.⁴¹⁾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그의 이름으로 나타내었으며(출 3:13-14)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의미하였다(창 32:28-29; 사 52:6).⁴²⁾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힘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들이 그 이름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신적인 기원을 드러내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⁴³⁾ 그러나 마태 공동체는 그들에게 더 이상 황제나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유대 왕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님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이름과 같이 자신들 공동체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달라고 청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계속 거룩한 분으로 언급하는 구약성서(레 11:45, 사 43:3)의 사례는 아무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자는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거룩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

41) Jerome H. Neyrey, *Give God the Glory: Ancient Prayer and Worship in Cultural Perspective* (Grand Rapids, MI: Eerdmans, 2007), 70.

42) Mitch Curtis and Sri Edward,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 Baker Academy, 2010), 106

43) 베스파시안 황제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과, 자신을 ‘주로 부르는 도미티안 황제는 여기에 ‘신’의 지칭을 첨가하였다. 신적인 기원을 지닌 황제들의 이름은 백성들에게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서중석, 『복음서해석』, 178.

로 인하여 모욕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인식되게 해달라는 것이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⁴⁴⁾ 이에 루츠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나 그 자신을 더 거룩하게 만들라는 청원이 아니며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임을 언급한다.⁴⁵⁾ 터너 역시도 원래 그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청원이자 다음에 이어지는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 설명한다.⁴⁶⁾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 모습이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청원이자 회복을 의미한다.

아버지 이름의 거룩함의 회복은 아버지의 나라 통치로 이어진다. 아버지의 나라는 경계를 지닌 일종의 국가 개념의 나라나 왕국이 아닌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청원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청원이다. 루츠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거룩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하나님에게 주체가 있다는 생각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종말론적인 통치의 기대라고 한다.⁴⁷⁾ 그러나 마태 공동체가 청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라에 임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통치와 다스림의 기대가 아니다. 이는 그들의 정치적 환경이 로마 황제의 통치와 대립을 이루고 있던 시기가 반영된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헤그너는 종말론적인 통치에

44) 에스겔 36:23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45) Luz, *Matthew 1-7 A Commentary*, 316.

46) Turner, *Matthew*, 187.

47)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종말론적 해석의 기도는 그의 강한 요점을 가지고 있다. Luz, *Matthew 1-7 A Commentary*, 318.

대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것과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⁴⁸⁾ 마태 공동체가 바랐던 하나님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통해 성취되는 것과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현에 대해 프란스(R. T. France)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선포된 것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이지만 그것에 대한 인지와 깨달음을 모두가 갖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언급되었음을 설명한다.⁴⁹⁾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긴장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청원을 의미한다. 동시에 ‘하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청원의 기도는 앞의 두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청원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과도 연결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온전한 뜻이 성취될 때 그 뜻이 실현되는 것과 같다.⁵⁰⁾ 하나님의 뜻을 모든 만물의 구원계획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서중석은 이 계획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마 28:18) 예수에게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는 것(빌 2:10)이라 한다.⁵¹⁾ 놀랜드(John Nolland)는 뜻(θέλημα)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순종(마 7:21; 12:50; 18:14; 21:31)을 위한 관심이라 설명한다.⁵²⁾ 이는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본적인 순종의 요구를 의미한다. 이때 세 번째 청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48) Hagner, 『WBC 마태복음 1-13』, 290.

49) 마 13:31-33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현재가 앞으로의 더 일반적으로 나타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 2007), 246

50) Jon M. Stubblefield, “Matthew 6:5-15,” *Review & Expositor*, 87 no 2(1990), 305.

51) 서중석, 『복음서해석』, 185.

52)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288.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이것은 하나님
의 주권적 의미를 나타내는 기도의 청원이다. 터너는 이 세 번째 청원이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청원에 ‘하늘
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 한다.⁵³⁾ 이러한 청원
에 마태복음 저자는 ‘하늘’ 사상에 그 초점을 두는 것이 사실이다. 김학철
은 ‘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의 권세와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⁵⁴⁾ 이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나라, 뜻이 ‘하늘’에 정체성을 두는 마태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서도 계속 실현될 것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지는 관점들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구조에 속하는 청원들인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통치를 구하는 마태 공동체의 태도이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마태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통치를 구하는 ‘하늘’ 사상이
그들 공동체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일상의 기도에서 드러나는 ‘하늘’ 사상: 양식, 용서, 보호를 구하는 기도

하늘 사상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 이어 마태 공동체
는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바로 앞 절까지 하나님의 거룩
함과 하늘의 통치를 구하던 기도의 분위기가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현실
적인 기도로 전환된다. 이는 네 번째 청원이 앞 구절과의 연계성을 이루
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일용한’에 사용된 ἐπιούσιος에

53) Turner, *Matthew*, 187.

54) 김학철, 『마태복음 해석』, 225.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매일의, 날마다의 의미를 지닌 ἐπιούσιος는 신약에서 오직 두 개의 주기도문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링턴(Daniel J. Harrington)은 ἐπιούσιος를 ‘다가오는 날’의 의미로 종말을 위한 간구로 사용되었거나 그날의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제시한다.⁵⁵⁾ 헤그너는 현실적인 양식을 위한 기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으나 그 역시도 종말론적 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에 종말론적 축복의 체험을 간구하는 것으로 여긴다.⁵⁶⁾ 이는 현실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미래의 종말적 축복의 기대도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키너(Craig S. Keener)는 예수가 분명히 그의 동시대 신자들에게 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양식의 복을 주었지만(마 5:6)⁵⁷⁾ 여기에서 그 개념의 암시는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한다.⁵⁸⁾ 여기에서 예수는 그의 추종자들이 미래의 왕국을 추구하도록 훈련하였고 그 추종자들은 현재의 빵을 요구(6:31-33, 7:9, 15:32)한 것이라 한다.⁵⁹⁾ 이는 미래의 왕국을 위한 훈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양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중석은 종말의 때의 양식으로 해석하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진 것과 맑은 포도주를 구하지 않으며 주기도문은 “우리의” 떡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 일상적인 기도에 무게를 두며 ἐπιούσιος는 “일용할”, “필요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한다.⁶⁰⁾ 그러므로 ἐπιούσιος는 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다.

55) Daniel J. Harrington, *The Gospel of Matthew*, 조장윤 옮김, 『마태오 복음서』 (대전: 대전카톨릭대학교출판부 출판부, 2016), 144.

56) Hagner, 『WBC 마태복음 1-13』, 293.

57) 마 5:6 “외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58) Craig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1999). 221.

59) 위의 책.

60) 서중석, 『복음서해석』, 194.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날의 필요를 구하는 절박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단순히 매일의 삶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보기보다 매일의 필요를 구하듯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두는 삶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창고에 가득 쌓아 두는 많은 양식이 아니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⁶¹⁾ 그날의 양식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두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늘’의 통치를 구하는 자들의 태도라 할 수 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⁶²⁾ ‘하늘’ 사상을 지닌 마태 공동체는 미래에 쌓아 둘 양식을 구하기보다 그 날의 양식만으로 충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 매일의 양식은 계속해서 다음 날을 위한 매일의 양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날 현재의 양식만을 구하는 것으로도 충분함을 의미한다. 이로써 네 번째 청원인 매일의 양식만을 구하는 모습 역시 ‘하늘’ 사상에 근거하는 마태 공동체가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늘에 근거를 두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매일의 양식만으로도 만족하던 마태 공동체 역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바로 죄의 문제이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가운데 죄의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⁶³⁾ 따라서 이러한 ‘죄’의 문제는 ‘하늘’에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심각한 난제가 되었다. 죄 용서의 문제가 해

61) 서중석, 『주기도문과 제자의 길』 (서울: 이레서원, 2008), 116.

62) 강대훈, 『마태복음 주석(상)』(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514.

63) 로마서 기자는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43-44절은 마태 공동체에게 이웃과 원수에 대한 사랑과 박해자를 위한 기도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 명시한다(마 5:45). 이러한 행동의 최종 결과는 곧 하늘 아버지와 같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⁶⁴⁾ 원수에 대한 사랑과 박해자를 위한 기도를 위해 마태 공동체는 주기도문 가운데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와 청원을 한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⁶⁵⁾라고 기도한다. 공동체가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했던 것은 그들에게 잘못한 자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었다. 마태는 여기에서 죄라는 단어에 ὀφείλημα를 사용한다. 그런데 원래 ὀφείλημα는 ‘빚’이라는 의미이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죄’라는 단어에 ἁμαρτία를 사용하고 있으나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는 ‘죄’라는 의미가 아닌 ‘빚’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다. ὀφείλημα는 그 원어의 의미로 재정적 의미를 뜻하는 빚이나 도덕적 의무의 빚이라는 의미를 지닌다.⁶⁶⁾ 따라서 본문을 다시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고’라고 해야 한다. 헤그너는 ὀφείλημα의 사용과 관련해 죄를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 보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근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⁶⁷⁾ 놀랜드는 죄와 관련하여 빚의 단어에 대한 사용이 원래의 기도문인 아람어의 근원으로 보고 있으며 빚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⁶⁸⁾ 이를 볼 때 단순히 히브리적 사고로 ἁμαρτία 대신 ὀφείλημα를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64) 마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5) 공동번역 개정판 마 6:12, 여기에서는 죄의 의미보다는 ‘잘못’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자 개역개정이 아닌 공동번역 개정판의 본문을 참고하였다.

66) Danker, BDAG, s.v. “ὀφείλημα.”, 743

67) Hagner, 『WBC 마태복음 1-13』, 293.

68)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290

수 있다. 이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ὀφείλημα*를 사용하여 이 기도문 가운데 드러내고자 한 공동체가 직면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여러 사회적 상황 가운데 예수 시대의 ‘빛’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목해 보고자 한다. 키너는 인간의 빛에 대하여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을 예를 들면서 빛은 보통 돈과 관련 있으며 이 청원은 빛에 의해 노예가 되는 것의 직접적인 반대를 제시하고 있음을 언급한다.⁶⁹⁾ 놀랜드는 죄와 관련하여 빛의 이미지의 보편적인 사용에서 인간적 단계의 용서는 빛의 탕감과 연관되어 있으며 신적인 단계의 용서는 완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와 연관됨을 언급한다.⁷⁰⁾ 마태복음의 기도문에서 ‘죄’라는 단어 대신 사용한 ‘빛’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빛’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1세기 이스라엘 사회의 주민들이 직면한 사회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세기 이스라엘 거주민들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및 1세기 지중해 근방의 주민들은 대부분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림의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그로 인해 소작료의 인상 등 여러 채무의 상황이 생겨났고, 빚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⁷¹⁾ 이러한 시대적 정황이 반영된 빛의 문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69)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222.

70)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290. 놀랜드는 마 18:23-35; 눅 7:41-43에도 빛이 죄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한다.

71) Ekkehard W. Stegemann and Stegemann Wolfgang, *Urchristliche Sozialgeschichte*, 손성현·김판임 옮김.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서울: 도서출판 동연, 2009), 88-91. 한편 마태 공동체의 경제적 특성은 자립 공동체이자 도시에 근거하는 부유한 공동체의 형태였음을 추정한다. 마태복음의 화폐의 단위, 보물에 대한 교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서술, 자신의 소유를 팔 것에 대한 권면 등으로 알 수 있다. 서중석, 『복음서해석』, 106-108. 그러나 마태 공동체가 자립한 부유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공동체 내 경제적 불균형은 언제나 존재한다. 마태복음에도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마태복음 26장 11절(“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죄의 문제가 빛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기도문은 경제적 빛의 탕감과 관련하여 죄 용서의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ὑφέλιμμα*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빛’으로 인한 죄의 문제를 용서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한 마태 공동체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제 용서와 관용을 실천하려는 마태 공동체는 자신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다. 시험(*πειρασμός*)에 사용된 단어는 ‘유혹’, ‘시험’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πειρασμός*는 매일의 일상에서 겪는 유혹이라기보다 혹독한 시련의 상황이나 종말의 전망이라고 말하는 견해들이 있다.⁷²⁾ 놀랜드는 이와 관련하여 만일이 청원이 종말론적으로 이해된다면 *πειρασμός*는 종말 기대의 부분인 최

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마 11:5),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의 명령(마 19:21)이 있다. 한편 카터(Warren Carter)는 마태공동체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해 도시 내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그는 1세기 경제 상황과의 비교와 함께 마태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는데, 노동자와 소작농, 세리와 경제적 소외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인물에 대한 언급과 도시공간 내의 다층적이고 계층화된 경제적 구성원들의 인물분포를 지적한다. 이러한 마태 공동체의 다양한 경제적 배경은 그들 공동체에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예측할 수 있다. Warren Carter, *Matthew and the Margins: A Sociopolitical and Religious Reading* (Maryknoll, N.Y.: Orbis Books, 2000), 24-27.

72) 서중석은 유혹과 관련하여 브라운과 예레미야스의 종말의 견해를 통해 비교한다. 브라운은 “*peirasmos*”가 일상적인 유혹에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의미는 의도적으로 줄이고 ‘사탄의 최후 공격에 대한 언급을 강조(“*Pater Noster*,” 204ff.를 참고하여 기술)하는 반면 예레미야스는 최후의 유혹보다는 장차 임박할 배교와 관련시켜 예레미야스가 그 시점을 미래로만 잡은 것(J. Jeremias, *The Prayers of Jesus*, p.105)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브라운과 예레미야스를 비교한다. 또한 브라운의 견해인 ‘사탄의 최후의 공격’이나 예레미야스가 언급한 ‘장차 임박할 배교’의 상황에 대해서도 브라운과 예레미야스는 *πειρασμός* 앞에 관사가 붙지 않은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 브라운의 추상적 ‘유혹’, ‘최후의 공격’ 보다는 구체적인 ‘시련’으로, 그리고 예레미야스의 미래의 임박할 배교보다는 현재의 배교로 이해한다면 주기도문의 해석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한다. 서중석, 『복음서해석』, 202-204.

후 위기의 순간(계 3:10)으로 정의되었을 것이나,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시험은 모든 나라에 다가오는 심판이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시험에서는 피해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⁷³⁾ 그렇다면 이들에게 닥칠 미래의 시험은 종말론적 상황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에 이 시험을 배교의 정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세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박해와 배교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1세기 네로황제는 유대인 박해를 시작하였으며 로마제국의 박해는 2세기 이후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⁷⁴⁾ 이에 키너는 대부분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다른 유대의 기도문들이 현재에서 시험받고 있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 한다.⁷⁵⁾ 이는 마태가 보호를 요청하는 청원에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시대의 시험보다는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처한 현실적인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고자 한 의도가 더 강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처한 현실적 시험들은 주기도문이 포함된 산상설교가 끝나는 부분에 기록된 “넓은 길”의 유혹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대한 경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⁷⁶⁾ 즉, 그들이 놓인 시련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인 상황에서의 박해이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신앙을 저버리는 것, 그리고 유대교와 대립하고 있는 종교적인 상황에서 다른 선지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73)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292.

74) 아마도 각주 66에서 예레미야스가 언급하고 있는 미래적 배교의 시기는 트라야나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등 2~3세기에 이루어질 박해에 대한 언급으로 여겨진다. 초기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usto L. González, *The story of Christianity. v.1, The early church to the reformation*, 엄성욱 옮김, 『초대교회사』(서울: 은성, 2010), 63-86; 147-158.

75)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224.

76) 마 7: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러한 가운데 다음에 이어지는 악($\piονηρός$)의 해석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요소가 된다. $\piονηρός$ 는 ‘악’ 또는 ‘악한 자’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악’이나 ‘악한 자’를 사단으로 보기보다는 박해를 가함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부터 배교 하도록 유도한 세력이나 거짓된 도를 가지고 미혹한 자들로 볼 수 있다.⁷⁷⁾ 따라서 기도문을 통하여 청원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배교와 시험의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시험에서의 보호를 위한 요청이자 시험과 배교의 상황에 놓이게 하는 ‘악한 자’로부터의 보호의 요청이다. 마태 공동체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실현되는 ‘하늘’ 사상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하늘’의 통치와 보호를 구하는 청원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하늘’ 사상은 주기도문의 전체 기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하늘의 통치와 함께 용서의 관용을 베푸는 자세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주기도문의 용서는 다음의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더 확대되고 강조된다.

IV. ‘하늘’ 사상의 구체적 실천윤리인 용서

주기도문은 13절을 끝으로 모든 청원을 마치게 된다. 그러나 저자는 기도문을 다 마치고 난 시점에 14-15절⁷⁸⁾을 통해 주기도문에 언급했던 용서를 위한 교훈을 다시 상기시킨다. 주기도문이 끝난 상황에서 용서를 위한 구절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 메시지에 대한 저자의 강조이다. 슈바이

77) 서중석은 정치적으로 공회에 넘겨져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거나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일들과 종교적으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일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서중석, 『복음서해석』, 204-206.

78)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

처(E. Schweizer)는 14-15절이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따라 과실이라는 *παρὰπτῶμα*를 사용함으로써 후대의 첨가임을 지적한다.⁷⁹⁾ 반면 헤그너는 마태복음 6장 1-18절의 흐름이 깨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마태 저자가 이 구절을 삽입한 것은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한다.⁸⁰⁾ 비록 주기도문에 이어 14-15절이 첨가되기는 했지만, 갈등을 겪고 있던 마태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일종의 삽입으로 보기보다는 주기도문에 연결되어 용서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로 보아야 한다.

베츠(Hans Dieter Betz)는 14-15절의 주기도문과의 연결과 관련하여 *ἀφίημι*(놓아주다)의 단어가 12절에 이어 14-15절에 표제어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연결은 14절 그러므로(*γὰρ*, for)에 의해 신학적 이유가 있음을 언급한다.⁸¹⁾ 터너 역시 비록 13절에 의해서 12절과 14-15절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의 세 개의 청원이 모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와 연관이 되어 있듯이 14-15절의 용서에 대한 태도 역시 12절의 용서에 대한 청원에 연결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세 개의 청원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⁸²⁾ 이는 14-15절이 용서의 확장임을 의미하며 단순한 반복이나 부가적인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구절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 부분은 큰 빛을 진 사람에게 대하여 용서의 준비

79) E. Schweizer,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번역실 옮김, 『마태오복음』(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86), 165.

80) Hagner, 『WBC 마태복음 1-13』, 295-296.

81) 베츠는 신학적 이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14-15절이 12절에 논리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의 적용이 전제되어 있다는 원칙이라는 것인데, 즉 만일 12절의 청원에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한다면, 그들의 기대는 그들 자신의 용서할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상호관계의 원칙이 제자들 공동체를 위해 실천적 표준이 된다는 것으로 만일 12절의 청원이 14-15절 원칙의 적용이 된다면, 용서의 주제는 용서가 부여될 때 용서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Hans Dieter Betz, *The Sermon on the Moun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415-416.

82) Turner, *Matthew*, 189.

가 되어 있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조건과 관련해 우리 인간도 우리에게 빛진 자에 대하여 용서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⁸³⁾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용서와 관련해 다시 살펴볼 문제가 있다. 과연 ‘죄’의 용서에 있어 우리의 용서가 먼저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가 먼저인가이다. 주기도문에서 언급되었던 12절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 즉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빛 곧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원한다. 여기에서 ‘용서하다’에 사용된 단어 *ἀφίημι*는 14-15절과 연관되어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 같이”로 번역되어 사람의 용서가 먼저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⁸⁴⁾ 만일 이 본문의 해석과 순서에 따른다면 인간이 행하는 죄용서가 먼저인 것으로 보이므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마 18:23-35)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본문으로 그 순서적 관점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임금이 일만 달란트를 빛진 자의 빛을 탕감해 주고 용서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임금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히려 자신에게 적은 빛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는 다시 임금에게 빛을 탕감받지 못한 죄인의 신세가 된다(마 18:23-35). 루츠는 이 구절에 대하여 무엇이 먼저인지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우며 악한 종의 비유(18:23-35)를 볼 때,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한 효과가 인간의 행동과 연결되지만 선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⁸⁵⁾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더라도 인간이

83) Theissen, 『복음서의 교회정치학』, 105.

84) Hagner, 『WBC 마태복음 1-13』, 293-294.

85) Luz, *Matthew 1-7 A Commentary*, 322.

타인을 향한 용서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용서가 선행될 필요는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는 인간의 용서가 반드시 행해져야만 한다. 이러한 기도문이 제시하는 용서의 이해를 위해 저자는 용서의 의무와 관련하여 14-15절을 강조하여 부가한 것이다.

또한 이 구절은 용서에 대하여 충족되지 않은 인간의 의무들에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터너는 제자들이 용서를 위한 기도 가운데,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하늘나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그들이 용서받은 특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책임의 일치를 보여야 하는 것으로 용서받은 자는 곧 용서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설명한다.⁸⁶⁾ 이는 곧 인간의 용서와 용서받음은 무엇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있는 동시에 용서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늘’에 두고 있는 우월한 자의식을 가진 마태복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라면 용서하는 자세를 통해 다른 사람을 향해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에 대하여 인간의 용서가 그 전제가 된다는 것은 시험이나 악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잘못’이라는 단어 *παραπτώμα*의 어원을 살펴보면 해석적 이해가 가능하다. *παραπτώμα*는 잘못, 범죄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발을 헛디더 발걸음을 떼는 이미지로 ‘실수’, ‘실책’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제공한다.⁸⁷⁾ 주기도문 13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는 청원으로 볼 때, 인간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으며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혹여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저지른 실

86) Turner, *Matthew*, 188-189.

87) Danker, BDAG, s.v. “*παραπτώμα*.”, 770.

수나 잘못에 대한 우리의 용서를 통해 우리 역시도 시험이나 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14-15절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책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를 베풀 것을 강조한다. 또한 παραπτώμα를 ‘죄’라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6장 12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죄’를 ‘빛’의 의미인 ὀφειλήμα를 사용한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당시의 정황상 ‘빛’을 진 것은 죄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빛’은 사람들이 고의로 진 ‘빛’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 ‘빛’에 대한 탄감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죄로 여긴 ‘빛’ 역시도 ‘실수’, ‘실책’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놀랜드는 마태복음 저자가 14-15절에서 ‘빛(ὀφειλήμα)’으로부터 ‘죄(παραπτώμα)’로의 전환은 12절에서의 ‘빛’을 잘못된 행동인 죄의 모습으로 의도한 것이라 설명한다.⁸⁸⁾ 빛을 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공동체에 속한 자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의 반영으로 ‘하늘’ 통치를 바라는 가운데 매일의 양식을 구하면서, ‘빛’으로 인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한 것이다. 또한 혹시 실수나 실책으로 인하여 ‘빛’을 지게 되었더라도,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다.

한편 놀랜드는 타인에 대하여 용서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의 완전한 채택을 마태가 의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데, 그는 신속한 용서는 필요하지만 신속한 용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⁸⁹⁾ 루츠는 용서와 관련하여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6:7) 모습과 달리, 하나님의 근접함을 강조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행동으로 기도의 연결을 보증하고 있다고 한다.⁹⁰⁾ 신속한 용서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닌 진실함의 행동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마태 저자가

88)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293.

89) 위의 책, 294.

90) Luz, *Matthew 1-7 A Commentary*, 327.

추구하고자 하는 행동이 바로 하늘 아버지와 같은 온전함(5:48)이다. 온전함이란 도덕적 결함이 없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온전함은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이나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온 마음을 다하는 자세이다.⁹¹⁾ 이와 관련해 베츠는 “온전함”의 목적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며 완전한 확장을 위해 용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 목표는 의로움의 상태와 동일한 것이라 한다.⁹²⁾ 그러므로 온전함은 용서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실천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하늘’ 사상을 가진 마태 공동체는 하늘 아버지와 같은 온전함을 갖추기 위한 자세로 온 마음을 다하는 실천적 모습으로 용서를 필수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용서의 명령은 마태의 윤리적 중심 내용에서 사랑의 계명과 일치한다.⁹³⁾ 마태복음 저자는 하늘 아버지와 같은 온전함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실수이든, 유희이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에서의 잘못이든 비판하지 말고 진정한 실천적인 용서라는 사랑의 명령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로써 저자는 용서의 강한 모델을 제시하는 12절과 연결되는 14-15절을 통해 예수의 핵심 윤리인 실천적 용서를 거듭 강조하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하늘’ 사상에 근거한 화해의 공동체로 이루어 가려고 하였다.

V. 나가는 말

하늘에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하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마태 공동체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늘의 통치를 바라기 때문이다. 마태 공동체는 하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면서

91) Kee, 『신약성서 이해』, 201.

92) Betz, *The Sermon on the Mount*, 417.

93) Luz, *Matthew 1-7 A Commentary*, 327.

자신들이 지닌 ‘하늘’ 사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자신들도 온전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다. ‘하늘’ 사상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간 마태 공동체는 하늘의 통치가 자신들의 공동체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과 하늘 사상은 주기도문을 통해 드러난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단순하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의 핵심이자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윤리 강령이었다. 마태 공동체 불화의 정황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제시된 용서의 모델은 하늘의 용서와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였다. 하나님 통치의 ‘하늘’ 사상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기도문에 나타나 용서의 윤리적 실천으로 승화되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일반적인 기도문이 아닌 ‘더 나은 의’를 실천하게 하고 아버지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공동체의 다짐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의 통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그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믿는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필요인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상황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두며 그 날에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태도가 요청된 것이다. 이는 마태 공동체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 공동체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늘의 통치를 바라고 있는 우리 역시도 내일의 양식이나 미래의 양식이 아닌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통치와 매일의 필요를 채웠던 마태 공동체는 또한 ‘더 나은 의’를 실천하기 위한 용서라는 윤리적 태도를 주기도문을 통해 보여준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마태 저자는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용서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용의 자세이자 필수적인 실천적 태도이다. 마태 저자는 공동체 불화의 정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용서만이 공동체를 화해로 이끌 수 있음을 제시하며 이를 반복하고 재강조하여 실천적 윤리로 가르친다. 주기도문이 주는 용서의 메시지는 마태 공동체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다만 용서를 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자들이나 입으로만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각고의 노력으로 용서를 몸소 실천하려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마태 공동체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늘’의 통치를 구하였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기도문에 담긴 깊은 뜻을 되새기고 하늘의 통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는 주기도문이 제시하는 용서의 윤리적 실천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윤리적 실천 과제는 ‘더 나은 의’를 위하여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다툼과 불화의 정황이 드러나는 기독교 공동체 내부와 외부의 상황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마태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했던 ‘하늘’ 사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기도문이 주는 용서의 메시지를 다시 새롭게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용서의 메시지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하늘의 통치를 소원하는 현대 기독교 공동체의 마음 깊은 곳에 되새기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윤리적 실천 과제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 강대훈. 『마태복음 주석(상)』.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김학철.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를 다시 살핌: ‘하늘’가족의 권세와 상과 ‘하늘나라.’” 『신약논단』 14(1)(2007), 1-37.
- 김학철. 『마태복음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권중선. 『신약성서 해석과 비평』. 대전: 침례대학교출판부, 2005.
- 서중석. 『복음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_____. 『주기도문과 제자의 길』. 서울: 이레서원, 2008.
- 소기천. 『예수말씀 복음서 Q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차정식.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와 신학적 상상력.”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6(2006), 57-88.
- Conzelmann, Hans and Andreas Lindemann. *Arbeitsbuch zum Neuen Testament*. 박두환 옮김. 『신약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 González, Justo L. *The story of Christianity. v.1, The early church to the reformation*. 엄성욱 옮김. 『초대교회사』. 서울: 은성, 2010.
- Hagner, Donald A. *World biblical commentary. v. 33A : Matthew 1-13*. 채천석 옮김. 『WBC 마태복음 1-13』. 서울: 솔로몬, 1999.
- Harrington, Daniel J. *The Gospel of Matthew*. 조장윤 옮김. 『마태오 복음서』. 대전: 대전카톨릭대학부 출판부, 2016.
- Kee, Howard C. *Understanding the New Testament*. 서중석 옮김. 『신약성서 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Luz, Ulrich. *Die Jesusgeschichte des Matthäus*. 박정수 옮김. 『마태공동체의 예수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Schweizer, E.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번역실 옮김. 『마태오복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Stegemann Ekkehard W. and Stegemann Wolfgang. *Urchristliche Sozialgeschichte*. 손성현·김관임 옮김.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서울 :

도서출판 동연, 2009.

Theissen, Gerd. *Gospel Writing and Church Politics-A Socio-rhetorical Approach*. 류호성 · 김학철 옮김. 『복음서의 교회정치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Betz, Hans Dieter. *The Sermon on the Moun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Carter, Warren. *Matthew and the Margins: A Sociopolitical and Religious Reading*. Maryknoll, N.Y.: Orbis Books, 2000.

Curtis, Mitch, and Edward Sri.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 Baker Academy, 2010.

Danker, Frederick W., Walter Bauer, W. F. Arndt, and F. W.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Foster, Robert B. "Why on Earth Use 'kingdom of Heaven'? : Matthew's Terminology Revisited." *New Testament studies* 48 no.4(2002), 487-499.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 2007.

Keener, Craig S.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Luz, Ulrich. *Matthew 1-7 A Commentary*. Translated by James E. Crouch. Minneapolis: Fortress, 2007.

Neyrey, Jerome H. *Give God the Glory: Ancient Prayer and Worship in Cultural Perspective*. Grand Rapids, MI: Eerdmans, 2007.

Nolland, John. *The Gospel of Matthew: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5.

Stubblefield, Jon M. "Matthew 6:5-15." *Review & Expositor*. 87 no 2.(1990), 303-307.

Turner, David L. *Matthew*.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Wenham, David. "The Seven of the Lord's Prayer in Matthew's Gospel." *The Expository Times* 121 no.8(2010), 377-382.

논문투고일: 2025년 07월 13일

심사개시일: 2025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08월 11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하늘’ 사상을 추구하는 마태복음 주기도문의 윤리적 교훈이 현대의 기독교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함이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하늘나라’는 ‘하늘’에 관심을 둔 마태의 표현이며 마태 공동체 정체성의 근원을 설명한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고자 했던 마태 공동체의 ‘하늘’ 사상은 주기도문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주기도문에 드러나는 하늘 통치의 개념은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과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일용한 양식과 연약함의 보호를 위한 기도에도 반영된다. 주기도문에서 공동체를 향한 용서의 윤리는 ‘더 나은 의’의 실천을 위한 표상이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타인을 향한 관용의 자세를 요구한다. 용서의 재강조는 현대의 기독교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용서의 윤리적 실천을 촉구한다.

주제어: 주기도문, ‘하늘’ 사상, 더 나은 의, 용서, 윤리적 실천
